

프랑스 교육시설의 현황

Today's Situ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in France

정 인 하*
Jeong, In - Ha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시설법은 프랑스 교육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법은, 교육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재정적인 보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지만, 모든 행정적인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의 어디에서나 지어질 수 있는 표준설계도와 지침서를 통해 학교시설을 건설하는 정책은 포기되었다. 이에 따라 나폴레옹 시대에 제정된 모델에 따라 지어지던 학교시설들은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높은 담, 좁은 문, 키 큰 창으로 대변되는 학교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건축가들에 의해 보다 다양하고 열린 교육을 가능케 하는 시설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런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프랑스의 학교시설들을 중심으로 최근의 경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중등학교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위한 지역보조금(la Dotation régionale d'équipement scolaire)'에 의해 형성된 기

금과 각 지역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재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설에 깊숙히 간여하게 되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규모와 학생수에 알맞는 학교시설의 규모를 규정해야만 했다. 이렇게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할지도 결정해야만 했다. 또 건축가들에게 주어진 프로그램도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되었다. 이 결과 교실의 규모, 홀, 동선공간, 작업실 등을 배치하고 설계하는데 상당한 자유로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질적인 도약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법의 시행 이전과 비교할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거 낙후된 학교시설은 중,고등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종종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과밀한 교실, 불결한 식당, 부족한 교원수 등으로 인해 이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했던 것이다. 이런 사태는 학교시설에 투여되는 적은 예산도 문제였지만, 주로 늘어나는 고등학생의 숫자에 의해 발생했다.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따라 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등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여기에 한 세대의 80%를 대학교육을 받게 하자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도 곁들여지면서 중·고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수는 매우 늘어났다. 과거 매년 적령인구의 40%만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던데 비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50%로 늘어났다. 이런 학생수자의 증가는 그동안 학교시설을 확충해 온 정부의 노력을 반감시켰다. 물론 1986년 법으로 인해 이런 불만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프랑스 학교시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확실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15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건설되었고, 1990년에 이중 최소한 40개의 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미건조한 것에서부터 독특한 건축가의 개성이 반영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지역성을 가미하기 위해 어떤 건축가는 그 마을의 풍경에서 건축적 형태를 빌려 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졸업후에 지역 사회에 쉽게 동화가 되도록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리카르도 보필(Ricardo Bofill)은 자신의 방식

대로 매우 기념비적으로 고등학교를 설계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형태를 떠나서 하이테크적인 이미지가 학교를 지배한 데도 있다. 아쉬텍뒤르 스튜디오(Architecture Studio)가 설계한 아렌느의 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경향은 특히 기술계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내부공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동선공간과 홀, 그리고 내부중정이 건축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다양하게 조합되고 배치되었다. 그들은 주로 내부에 난 길(rue intérieure)에 통합되어 있고, 이 길은 각 층의 동선을 연결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니콜라 루겔르(Nicolas Rougelle)가 설계한 가이옹-오브르와 고등학교와 리카르도 포로(Ricardo Poro)가 설계한 생드니의 고등학교는 이런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음악실이나 작업실도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었다. 그렇지만 건축가들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곳이 바로 교실이었다. 교실은 학교교육의 프로그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보다 많은 융통성을 주기 위해 건축가들은 가동 벽을 설치하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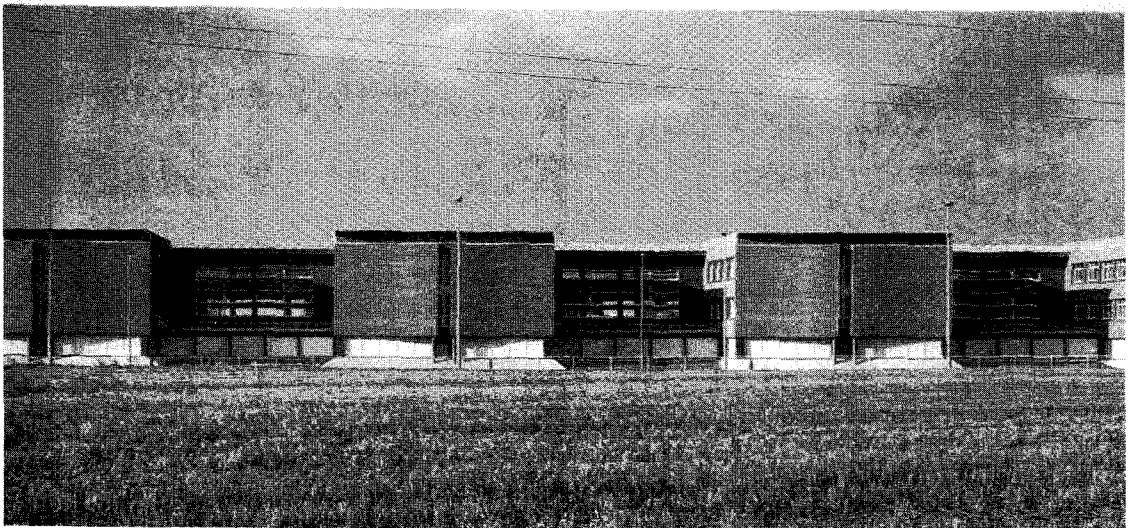


그림 1. 리세 가이옹-오브르와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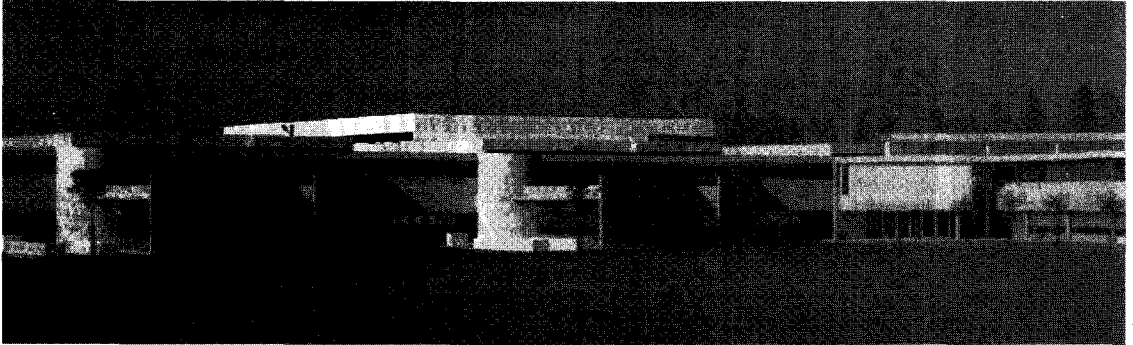


그림 2. 리세 800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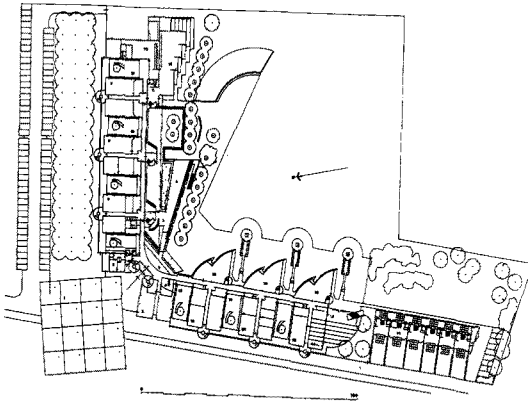


그림3. 리세 800의 1층평면도

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이것은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일반교실 외에 실험실이나 시청각실, 전산실, 대형강의실 등에 대해서 건축가들은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학교시설은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려움은 건축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생각의 관성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1986년 이후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학교시설의 예를 몇 개 보여주고자 한다. 그들은 니콜라 루갱르(Nicolas Rougueulle)가 설계한 리세 가이용-오브브와(Lycée intercommunal, Gaillon-Aubevoye), 봉두플에 있는 리세 800(Lycée 800, Bondoufle, 앙드레 크레스펠 설계), 생-드니에 있는 콜레쥬 엘사 트리올레(Collège Elsa Triolet, 리카르도 포로 설계), 블루와의 리세(Lycée, Blois, 길베르 오프레 설계), 앙부와즈에 있는 리세 비티폴르(Lycée Viticole, 필립 알뤼앵 설계), 아리에쥬에 있는 콜레쥬 드마스 다질(Collège du Mas d'Azil, 조셉 알뤼드베 설계), 마르세이유에 있는 리세 테크닉(Lycée technique, 뷔키앙꼭 설계)이다.

리세 가이용-오브브와는 150m에 이르는 긴 내부 길에 의해 학교전체의 공간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것은 다양한 학교시설들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있다. 교실들은 이 긴 내부 길과 연결된 다섯 개의 단위체 내에 배치된다. 이렇게 단위체로 분절한 이유는, 각 교실에 독립감을 주면서, 자연과 최대한 접하도록 하고, 또 각 단위체를 사이로 난 작은 중정이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단위체들은 각기 분절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파사드를 가지고 있어서 반복된 리듬을 건물에 부여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새롭게 설계되고 있는 학교시설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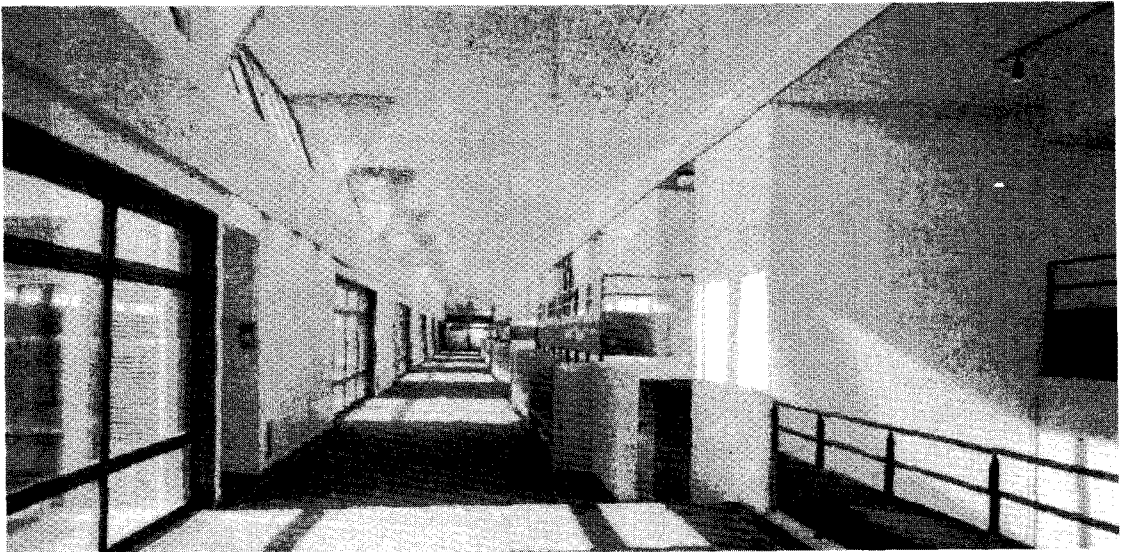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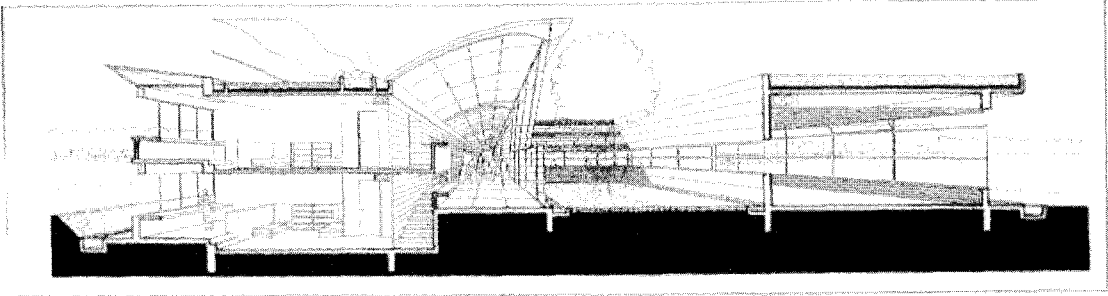


그림 4.5 리세 비티폴르의 투시도와 내부길

서 많은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어고 있는데, 이 학교는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리세 800도 2층으로 된 교실과 그들을 연결하는 계단들로 구성된 단위체들이 반복되면 강한 리듬을 주고 있다. 이들 단위체들 사이에는 작은 정원을 설치하여 교실이 이 정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길게 연결되는 복도는 이들 단위체들을 하나의 동선으로 통합하고 있고, 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 편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특별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 재료는 주로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리세 비티폴르는 포도재배와 포도주에 관련

한 고등학교답게, 건물도 이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L'자로 된 학교 건물의 옥상에는 실제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학교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물이 주위로 펼쳐진 자연 환경 속으로 쉽게 동화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학교에는 기숙사와 130명의 학생을 위한 교실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는 커다란 내부복도가 여기서도 설치되어 있다.

끌레쥬 뒤 마스 다질과 마르세이유의 리세 테크닉은 매우 하이-테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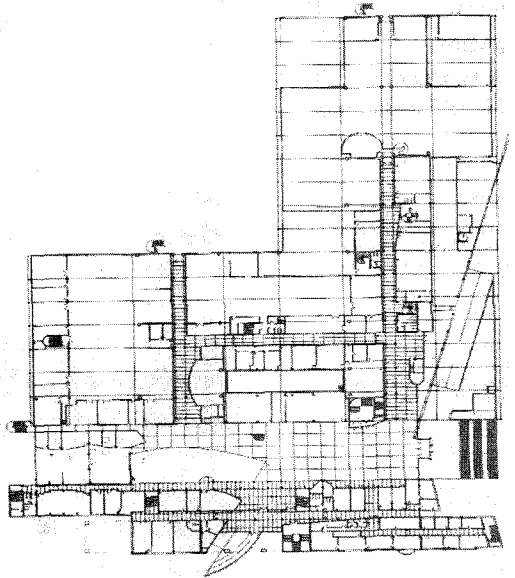


그림 6.7 리세 테크닉의 전경과 1층 평면도

전자는 평면계획에서 수평과 수직의 두 개축을 교차시켰다. 여기서 수평축에는 교실이 들어가고, 그 파사드는 마치 물결치는 것과 같은 곡선으로 처리되어 재미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수직축에는 주로 정보자료 센터, 다용도실, 집회실과 같은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 두 개 축이 만나는 곳에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다. 외부는 회색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리세 테크닉은 “지식을 완성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영원한 도전물로 생각하라”는 디드로의 말을 교훈으로 받아들

이고 있다. 공업학교이기 때문에 건물은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교실로 구성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작업장이 있는 부분이다. 이 사이를 거대한 내부 갤러리가 연결하고 있다. 교실부분은 중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복도는 천창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작업장 부분은 공간을 세분하지 않고 넓게 처리하여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내부에 기둥을 없애기 위해 천장을 서스펜션 구조로 매달았다. 이런 구조적 형태는 이 학교가 공업학교라는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